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맞벌이 가구의 구성과 특성

이재림 (서울대학교)

-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으며,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40%에 불과하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맞벌이의 비율은 막내자녀가 청소년, 아동, 영유아인 경우의 순으로 높지만,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의 증가폭은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더 크다.
- 전체 근로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외벌이 가구보다 많으며, 소비지출 항목 중 교육비와 음식·숙박비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차이가 크다.
- 맞벌이 가구에서 근로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길고, 그 차이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크게 벌어진다. 그러나, 가정관리와 자녀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길다.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외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도 차이가 없다.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은 맞벌이 남편보다 맞벌이 아내가 높다.
-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가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1인 생

계부양자의 소득만으로는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맞벌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벌고, 함께 돌보는 이른바 ‘맞벌이·맞살림’이 평등한 부부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맞벌이가 보편화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맞벌이 가구 집단 내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비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맞벌이 남녀의 근로시간 및 가사분담, OECD 국가의 맞벌이 가구 비중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결과와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글에서 ‘맞벌이 가구’란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경우를 의미한다¹⁾. 취업의 정의는 수입을 목적으로

1) 통계청 자료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같이 살지 않는 부부도 맞벌이 가구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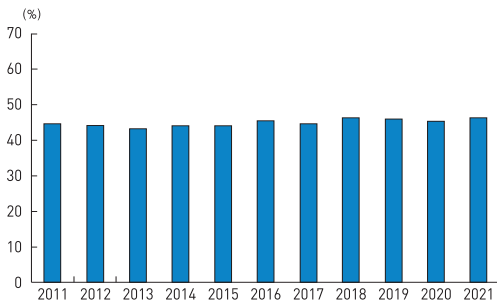


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했거나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우 및 일시휴직자이다.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

우리나라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46.3%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그림 II-23).

[그림 II-23]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 2011~2021



- 주: 1) 맞벌이 가구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임.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3)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일시휴직자를 포함하며,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구분하지 않음.
 4) 2011년과 2012년은 2분기(6월)에 조사한 결과이며, 2013년 이후는 하반기(10월)에 조사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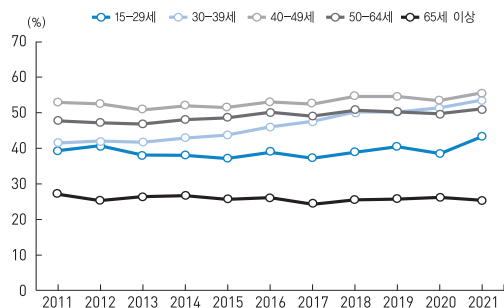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제주도(61.4%)에서 맞벌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시(41.0%)

와 부산시(39.8%)는 상대적으로 낮다. 맞벌이 가구 중 주말부부 등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2021년 기준 12.0%이다. 즉, 10쌍 중 1쌍 정도의 맞벌이 부부는 따로 살고 있다.

가구주 특성별 맞벌이 가구의 비중

가구주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대별 맞벌이의 비율은 40~49세(55.1%), 30~39세(53.3%), 50~64세(50.8%)의 순이었다. 이 중 가구주가 30~39세인 가구에서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41.4%였으나, 2021년에는 53.3%로 11.9%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그림 II-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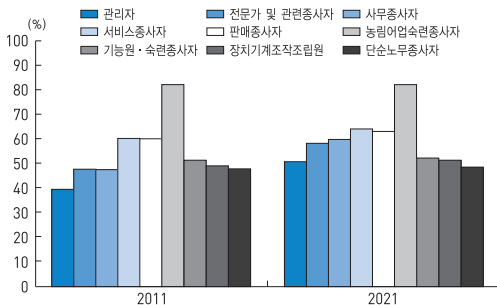
[그림 II-24] 가구주의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의 비중, 2011~2021



- 주: 1)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2) 2011년과 2012년은 2분기(6월)에 조사한 결과이며, 2013년 이후는 하반기(10월)에 조사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가구주의 직업별 맞벌이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82.5%, 서비스종사자의 64.5%, 판매종사자의 63.3%가 맞벌이었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집단에서 맞벌이의 비중이 2011년과 2021년 사이에 각각 12.4%p, 11.2%p, 10.6%p 증가하여서 증가폭이 컸다(그림 II-25). 즉, 가구주가 농림어업이나 판매·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때 맞벌이의 비율이 꾸준히 높지만,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가구주 중에 맞벌이인 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I-25] 가구주 직업별 맞벌이 가구의 비중, 2011, 2021



주: 1)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2) 2011년은 2분기(6월에), 2021년은 하반기(10월에) 조사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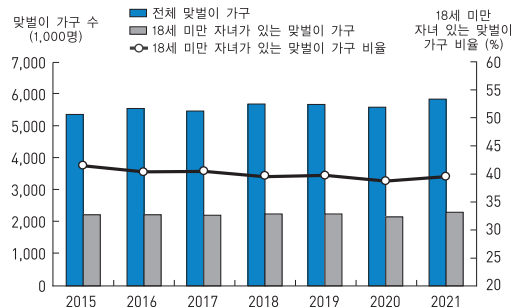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에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는 집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

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일-가정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전체 맞벌이 가구는 582만 3,100 가구였고, 이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29만 9,000 가구였다. 즉, 전체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39.5%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맞벌이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모든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에서는 약 60%가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임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전체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41.5%에서 39.5%로 조금 감소하였다. 2015년에 비해 2021년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의 수는 미세하게 증가했으나,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 된 맞벌이 가구의 수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림 II-26).

[그림 II-26]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 2015-2021



주: 1)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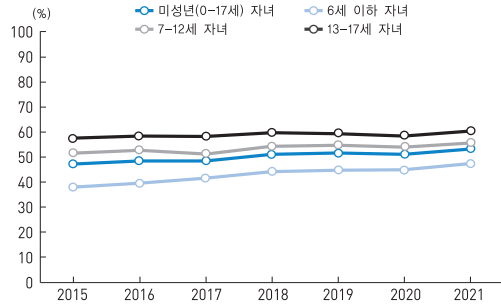
한편,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53.4%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2015년 47.3%와 비교할 때 6.1%p 증가한 것이다. 자녀유무나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의 비중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2.2%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폭이 더 크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비율을 자녀의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살펴보면, 13~17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60.5%, 7~12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55.5%,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47.3%가 맞벌이었다. 즉,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보다는 초등학교생인 경우, 초등학교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교생인 경우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증가폭은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가장 컸다. 즉,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막내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맞벌이의 비율은 9.2%p, 7~12세인 경우는 3.9%p, 13~17세인 경우는 2.9%p 증가하였다(그림 II-27).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이후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의 비율이 10% 가깝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재택근무나 시간제근로가 가능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육아휴직(8세 이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이

[그림 II-27] 막내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의 비중, 2015-2021



주: 1)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나 무상보육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나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결과라고 추측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맞벌이 가구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지출할까?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가 아닌 가구를 비교할 경우, 부부가 모두 일하지 않는 노인가구 등의 비(非)근로자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연령효과와 영향을 줄이고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체 가구가 아닌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비교하고자 한다.²⁾

근로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1분기에 829만 5,902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556만 7,310원보다 272만 8,592원 많았다. 소득 중 근로소득은 맞벌이 가구가 월평균 718만 2,124원, 외벌이 가구가 452만 4,962원으로, 차이는 265만 7,162원이었다. 즉,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이는 대부분 근로소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및 저축에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은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가 월 647만 7,752원, 외벌이 가구가 월 439만 3,949원이었다. 즉, 맞벌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외벌이 가구보다 월 208만 3,803원 많았다. 흑자액은 맞벌이 가구가 월 275만 1,811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흑자액 133만 2,556원보다 141만 9,255원 많았다. 흑자율은 맞벌이 가구가 42.5%, 외벌이 가구가 30.3%였다(표 II-7).

가계지출은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가 월평균 554만 4,091원으로, 외벌이 가구(423만 4,754원)보다 130만 9,337원 더 지출했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만 보면, 맞벌이 가구가 월평균 372만 5,941원, 외벌이 가구가 306만 1,393원으로 차이는 66만 4,548원이었다. 비소비지출은 맞벌이 가구가 월평균 181만 8,150원,

〈표 II-7〉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의 소득, 2022.1/4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소득(원)	8,295,902	5,567,310
근로소득(원)	7,182,124	4,524,962
처분가능소득(원)	6,477,752	4,393,949
흑자액(원)	2,751,811	1,332,556
흑자율(%)	42.5	30.3

주: 1) 전국 2인 이상 비(非)농림어업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전체 근로자 가구 중 맞벌이와 외벌이의 자료로, 가구주와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만 포함함.

3) 처분가능소득 = 소득 - 세금 등 비(非)소비지출액.

4)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5)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2년 1분기.

〈표 II-8〉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의 지출, 2022.1/4

(원)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가계지출	5,544,091	4,234,754
소비지출	3,725,941	3,061,393
식료품·비주류음료	503,991	489,473
주류·담배	45,193	35,797
의류·신발	188,474	132,164
주거·수도·광열	355,847	408,68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67,085	126,928
보건	294,446	259,646
교통	406,862	348,020
통신	177,560	144,726
오락·문화	225,535	172,770
교육	529,633	303,927
음식·숙박	520,619	392,448
기타상품·서비스	310,696	246,815
비소비지출	1,818,150	1,173,361

주: 1) 전국 2인 이상 비(非)농림어업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전체 근로자 가구 중 맞벌이와 외벌이의 자료로, 가구주와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만 포함함.

3) 비(非)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이전지출 등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2년 1분기.

2)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맞벌이가 아닌 가구주의 평균 연령(54.8세)이 맞벌이 가구주(49.3세)보다 5.5세 높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반면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맞벌이 가구주와 외벌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각각 47.8세와 49.8세로 유사하다.



외벌이 가구가 117만 3,361원이었다.

항목별 소비지출은 주거·수도·광열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외벌이 가구보다 많았다.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교육비와 음식·숙박비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각각 22만 5,706원, 12만 8,171원 더 지출했다. 맞벌이 가구가 학원 등 사교육과 외식이나 배달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소비지출 항목은 주류·담배에 이어 식료품·비(非)주류음료 비용으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월평균 1만 4,518원 더 지출했다(표 II-8).

맞벌이 남녀의 근로시간 및 가사분담, 피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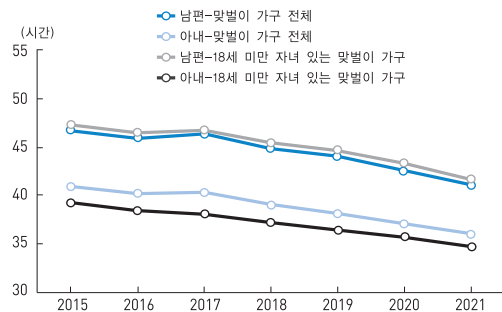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남편이 41.1시간, 아내가 36.0시간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5.1시간 오래 일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편과 아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5.6시간과 4.9시간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세를 반영한다.

같은 조사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에 남편이 41.6시간, 아내는 34.7시간으로 남편이 6.9시간 오래 일했다. 전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차이가 8시간에서 6.9시간으로, 격차가 1.1시간 줄었다.

또한 전체 맞벌이 부부와 비교할 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은 0.5시간 오래 일했고, 아내는 1.3시간 짧게 일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아내 중에는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II-28).

[그림 II-28] 맞벌이 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5~2021



주: 1)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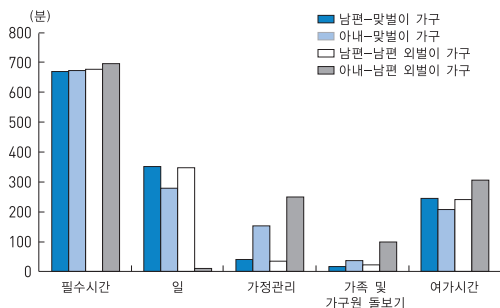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맞벌이 가구의 아내와 남편은 필수활동, 의무활동, 여가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필수시간은 맞벌이 아내와 남편이 비슷했지만 일, 가사노동 등 의무시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맞벌이 남편이 하루 평균 5시간 50분, 맞벌이 아내가 4시간 37분으로 남편이 1시

간 13분 더 일했다. 가사노동(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내가 하루 평균 3시간 7분, 맞벌이 남편이 하루 평균 54분으로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 13분 더 길었다. 흥미롭게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외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53분과 하루 평균 1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으로 나누어 보면, 가족돌봄보다 가정관리에서 맞벌이 가구와 남편 외벌이 가구의 차이가 컸다. 맞벌이 남편의 가정관리 시간은 외벌이 남편보다 하루 평균 6분 길었지만, 가족돌봄 시간은 오히려 5분 짧았다. 아내의 경우, 남편 외벌이 가구의 아내보다 맞벌이 아내의 가정관리 시간이 1시간 34분 짧았고, 가족돌봄 시간은 1시간 짧았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은 맞벌이 남편이 하루 평균 4시간 2분, 맞벌이 아내가 3시간 25분을 사용하여 맞벌이 남편의 여가시간이 37분 길었다(그림 II-29).

[그림 II-29] 맞벌이 및 남편 외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생활시간, 2019



주: 1)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외벌이를 남편이 혼자 버는 경우와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했으며, 여기서는 남편이 외벌이인 경우의 결과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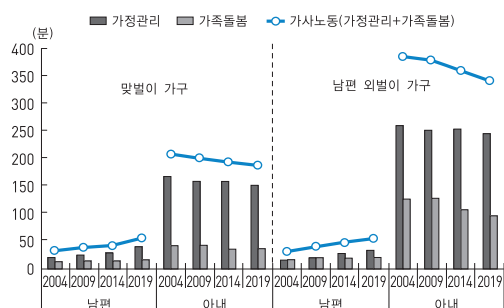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맞벌이 남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32분)과 2019년(54분) 사이에 22분 증가하였고, 맞벌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3시간 28분)과 2019년(3시간 7분) 사이에 21분 감소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한 것은 외벌이 가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으로 나누어 2004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돌봄보다 가정관리 활동에서의 변화폭이 더 컸다. 가정관리 시간은 기계화, 외주화 등으로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 등은 더욱 강조되면서 자녀 등 가족돌봄 시간은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30).

부부의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부부가 공평

[그림 II-30] 맞벌이 및 남편 외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2004-2019



주: 1) 2004년과 2009년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유배우자 가구를, 2014년과 2019년은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사노동 = 가정관리 + 가족돌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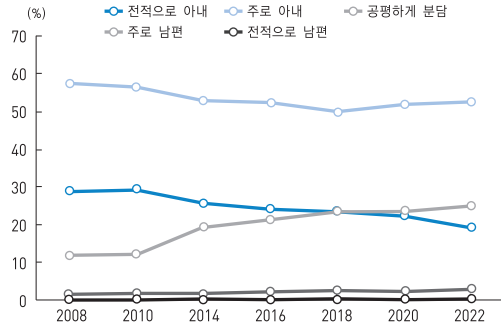
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으로 응답하도록 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의 경우 아내가 주로 하는 경우가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가 25.0%, 그리고 아내가 전적으로 하는 경우가 19.3%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 아내가 주로 하는 경우의 비율(52.7%)은 맞벌이와 유사했으며, 아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27.0%)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16.9%)보다 10.1%p 높았다. 즉, 아내가 주로 부담하는 비중은 맞벌이와 외벌이의 차이가 없었지만,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이 맞벌이 집단에서 높았다.

이상과 같은 2022년의 결과를 2008년 「사회조사」와 비교하면,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증가폭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를 부담한다는 경우의 감소폭은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컸다. 즉, 2008년에 전적으로 아내가 부담하는 비중은 맞벌이 28.9%, 외벌이 39.8%로 10%p 이상 차이가 났으나, 2022년에는 맞벌이 19.3%, 외벌이 27.0%로 두 집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그림 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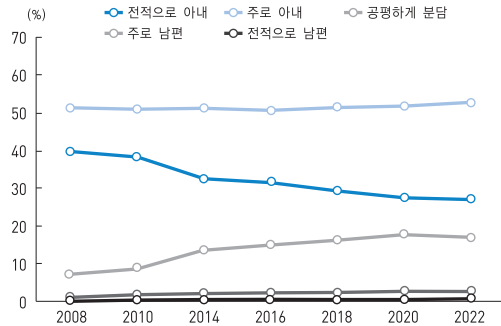
하루 일과 후 피곤함을 느끼는 맞벌이 남녀의 비율은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남편의 85.9%, 아내의 90.5%였다. 남편 외벌이 가구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남편 86.5%, 아내 74.9%)과 비교하면, 남편의 경우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고 아내는 맞벌이인

[그림 II-31]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2008-2022

1) 맞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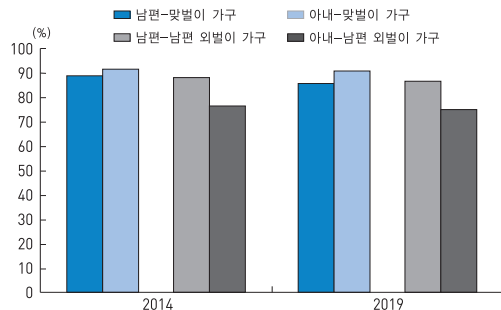


2) 외벌이



주: 1)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2018년부터 주말 부부 포함)에서 19세 이상 '아내'가 응답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II-32] 맞벌이 부부의 피곤함 경험 비율, 2014,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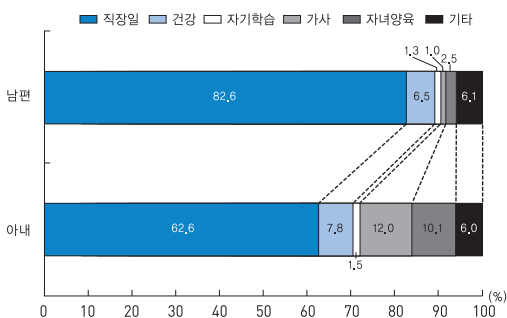


주: 1) 피곤함 경험 비율은 "귀하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피곤함' 또는 '조금 피곤함'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경우가 남편 외벌이인 아내보다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맞벌이 남편 중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은 3.3%p 감소했고, 맞벌이 아내 중 피곤함을 느끼는 아내는 1.1%p 감소했다(그림 II-32).

피곤한 주된 이유로는 2019년에 맞벌이 남편의 82.6%, 맞벌이 아내의 62.6%가 직장일을 꼽았다. 맞벌이 아내는 가사(12.0%)와 자녀양육(10.1%)을 꼽은 비율을 합하면 20%를 넘었다(그림 II-33).

[그림 II-33] 맞벌이 부부의 피곤함 주된 이유, 2019



주: 1) 하루일과 후 피곤함을 느낀 경우에만 이유를 응답함.

2) 가사 항목에서 자녀양육은 제외됨.

3) 기타 항목에 인간관계와 주변환경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OECD 국가의 맞벌이 가구 비중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14세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자 가구의 고용상태를 (1) 두 사람 모두 전일제, (2)한 사람 전일제, 다른

사람 시간제, (3)한 사람 전일제, 다른 사람 무직, (4)두 사람 모두 무직, (5)기타로 분류하여 각국의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유배우자에는 기혼자 이외에도 법적으로 등록한 동거커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등 7개국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표 II-9).

2019년을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전일제인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이 45.6%였고, 스웨덴이 74.9%로 매우 높았다. 한 사람은 전일제, 다른 사람은 시간제인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OECD 평균이 16.9%였고 네덜란드가 50.1%로 가장 높았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둘 다 전일제인 경우와 한 사람만 전일제인 비중이 비슷했다(영국 38.4%, 31.4%; 독일 31.2%, 38.0%). 반면 외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칠레(44.5%) 등이 있다. ‘전일제+전일제 맞벌이’와 ‘전일제+시간제 맞벌이’를 합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이 62.5%였다(‘시간제+시간제 맞벌이’는 제외됨).

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4세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자 가구의 50% 이상이 맞벌이였다. ‘14세 이하’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한 2019년 OECD 자료와 ‘18세 미만’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지역별 고용조사」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2019년 51.4%)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I-9〉 주요 OECD 국가의 14세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중, 2019

(%)

	전일제+ 전일제 맞벌이	전일제+ 시간제 맞벌이	전일제+ 무직 외벌이	무직+ 무직	기타 ⁴⁾
OECD 평균	45.62	16.87	25.82	3.40	8.29
EU 평균	53.12	13.43	24.96	3.67	4.82
스웨덴	74.89	7.70	11.88	2.20	3.33
핀란드	58.11	7.95	21.69	3.60	8.66
프랑스	52.19	14.63	22.25	5.94	5.00
미국 ³⁾	50.52	11.97	32.12	2.88	2.51
스페인	43.84	14.10	28.09	5.40	8.57
칠레	39.00	9.62	44.54	2.96	3.87
영국	38.37	31.38	19.83	3.01	7.41
이탈리아	32.05	18.85	36.29	7.03	5.78
독일	31.19	38.02	22.47	4.42	3.90
네덜란드	26.44	50.10	15.69	2.71	5.05

주: 1) 유배우자는 기혼자 및 법적으로 등록된 동거커플을 의미함.
 2) 전일제는 주된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함.
 3) 미국은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를 기준으로 함.
 4) '기타'에는 시간제+시간제 맞벌이, 시간제+무직, 결혼치 등이 포함됨.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LMF-2-2-Distribution-working-hours-couple-households.xlsx>), 2019.

맞춤말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맞벌이 모형이 인식의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통계를 토대로

보면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맞벌이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도 높지 않다.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가구주가 30대인 유배우자 가구에서 맞벌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맞벌이가 젊은층의 부부에게는 인식과 실제 측면 모두에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과 후자율이 높아서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근로와 가사노동의 분담은 성별로 비대칭적이다. 근로시간은 남성이 조금 더 길고,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은 맞벌이의 경우에도 아내가 주로 맡고 있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에 덜 유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를 중요하게 여긴다(김은지 외, 2021). 따라서 부부가 한 팀으로 경제활동과 가사 및 돌봄을 공유하는 균형적인 맞벌이 모형의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지 외, 2021.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I): 저출산 대응 담론의 재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